

CBMC 김해한마음지회 · 토요조찬포럼

# 5월 말씀 묶음집

2026년 5월 · 다섯 번의 모임, 다섯 개의 말씀

- 5월 2일 **풍요의 저주**  
골로새서 2:6-10 · 서재찬 박사
- 5월 9일 **이러니 어찌?**  
창세기 26:12-24 · 최무열 목사
- 5월 16일 **더 큰일을 하리라**  
요한복음 14:12-14 · 한진준 목사
- 5월 23일 **케노시스 — 비움, 그 거룩한 하강**  
빌립보서 2:5-11 · 서재찬 박사
- 5월 30일 **CBMC의 현대적 적용**  
고린도전서 4:1-2 · 김기호 목사

"일상이 교회, 삶이 예배"

사랑하는 김해한마음지회 형제자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말씀을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풍요의 경고(5/2)에서 시작해, 이삭의 우물(5/9)과 더 큰 일의 약속(5/16)을 지나,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5/23)에 이르고, 충성된 청지기의 부르심(5/30)으로 마무리된 한 달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다섯 말씀이 하나의 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 경계하고, 양보하고, 믿고, 비우고, 말하는 길. 곧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입니다.

각 강의의 전체 슬라이드(PDF)와 강의 실황 오디오는 홈페이지 포럼 일정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가 출퇴근길의 묵상, 소그룹의 나눔, 그리고 아직 포럼에 오지 못한 한 분을 초대하는 손편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전체 자료 보기

홈페이지: [cbmc-gimhae.netlify.app](http://cbmc-gimhae.netlify.app) → 포럼 일정

각 강의의 [ 강의안 보기 ] [ 오디오 듣기 ]를 누르십시오.

# 5월 2일 · 풍요의 저주

골로새서 2:6-10 · 서재찬 박사 (반석인더스트리즈 대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골 2:9-10)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로마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돔의 최악도 가난이 아니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겔 16:49)에서 자랐습니다. 풍요 그 자체가 아니라, 풍요를 다루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형통한 비즈니스맨일수록 이 경고 앞에 서야 합니다.

## 1 풍요가 저주가 될 때

로마의 붕괴, 소돔의 멸망 — 문명을 무너뜨린 것은 기근이 아니라 넘침이었습니다. 사업의 성공 곡선이 가장 높은 지점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 2 풍요 속의 분별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풍요는 개인과 공동체를 부패시킵니다. 채워질수록 더 깨어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합니다.

## 3 참된 충만 — 플레로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플레로마)이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소유의 충만은 마르지만, 그리스도의 충만은 흘러넘쳐 이웃을 살립니다.

### 나눔 질문

나의 사업에 '풍요의 저주'가 스며들 수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소유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충만 중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 풍요의 저주: 진정한 축복으로 가는 '비움'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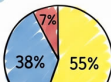
풍요로움이 주는 자기중심적 함정을 경고하고, 그리스도의 '비움(Kenosis)'을 통해 진정한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풍요의 저주와 겉모습의 함정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 시각적 요소
- 청각적 요소
- 말의 내용



메라비언의 법칙



심상(心相)이  
인품을 결정



역사적 경고: 로마의 몰락

노동의 가치 상실, 강한 자군 갈구 = 공동체 붕괴

### 비움(Kenosis)과 사명으로의 전환



Kenosis

자기 비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삶  
내 안의 욕심과 고집 내려놓기

1. 자기 부인과 순종



나의 계획 비우기

2. 채움



하나님의 뜻과  
감사로 채우기

3. 믿음의 뿌리



견고히 내리기

가장 작은 자를 향한 섬김



소외된 곳에 복음 전파  
'지극히 작은 자' 소중히 여기기



베트남

스리랑카

© NotebookLM

## 풍요의 저주와 비움의 지혜 — 서재찬 박사

한눈에 보는 말씀 — 인포그래픽 시리즈

# 5월 9일 · 이러니 어찌?

창세기 26:12-24 · 최무열 목사 (전 부산장신대 총장)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창 26:12)

이삭은 흉년의 땅에서 백 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곧 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의 형통을 시기하여 우물을 막은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반작용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답합니다.

## 1 축복이 불러온 위기

백 배의 결실 뒤에 불레셋의 시기가 따라왔습니다. 형통의 계절은 동시에 시험의 계절입니다. 사업이 잘될 때가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 2 에섹과 싯나를 지나 르호봇으로

이삭은 다툼의 우물(에섹)과 대적의 우물(싯나)을 양보하고 다시 팠습니다. 마침내 다투지 않는 넓은 곳, 르호봇에 이릅니다.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 3 신뢰의 양보 — 선한 영향력

손해 보는 듯한 결정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다툼 대신 양보를 선택하는 비즈니스맨을 통해 세상은 '이러니 어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지 않겠는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 나눔 질문

나의 사업에서 지금 '막힌 우물'은 무엇입니까? 다시 파야 할 우물과 양보해야 할 우물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 이러니 어찌 축복하지 않으랴 : 이삭의 삶에서 배우는 성공과 복의 비결

이삭의 삶 : 기근 속 100배 복의 비결과 다름을 피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영적 리더십의 가치

## 축복받는 자의 성품과 결단



기근 중 100배의 결실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은혜로 남들이 심지 않을 때 씨를 뿌려 100배의 풍성한 수확을 거둬.



사람을 귀히 여기는 양보  
블레셋의 시기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때, 다윗보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우물을 내어주고 떠남.



### 준비된 자의 기회 (볼트 회장)

호텔 청년 볼트가 노부부에게 자기 방을 내어준 성실함과 인성이 결국 세계적 호텔의 경영자로 이끈.

## 신앙의 계승과 영적 해석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아버지 아브라함이 짚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며 조상의 신앙 유산을 존중함.

###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영적 습관

<p>에섹 (Esek) - 다름</p> <p>다름을 피해 양보하고 이등함</p>	<p>신나 (Sitnah) - 대적</p> <p>대적자들을 떠나 다시 우물을 팜</p>	<p>르호봇 (Rehoboth) - 넓음</p> <p>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번성케 하심</p>
--	--	--

### 원수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동행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며 화친을 청함.

## 이삭의 삶에서 배우는 성공과 복의 비결 — 최무열 목사

한눈에 보는 말씀 — 인포그래픽 시리즈

# 5월 16일 · 더 큰일을 하리라

요한복음 14:12-14 · 한진준 목사 (엘림G선교회 대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요 14:12)

한 기업인이 새벽에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주님, 저도 해당됩니까? 저의 비즈니스가 주님의 일터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일터로 출근하는 모든 믿는 자의 것입니다.

## 1 '더 큰 일'의 비밀

더 큰 일은 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과 동역하며 복음이 온 세상의 일터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무실과 공장이 그 현장입니다.

## 2 '내 이름으로' — 독점적 대리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법적 대리권이자 절대 보증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비즈니스와 일터를 그리스도께 연결하는(CBMC) 공식 대리인입니다.

## 3 오늘 회사로 돌아가서 할 '한 가지'

거창한 목표 대신, 직원 한 명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십시오. 그 따뜻한 약속의 한 마디가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는 '더 큰 일'의 시작입니다.

## 나눔 질문

나의 일터가 성전이라면 오늘 드릴 첫 예배(행동)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 '내 이름으로' 구할 담대한 기도 제목 하나는 무엇입니까?

# 더 큰 일을 하리라 : 일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위임장'

그리스도께 연결하여  
일터를 사명의 현장으로 변화

비즈니스의 재정의 - 생존을 넘어 사명으로

세상의 KPI vs 하나님의 KPI

세상의 장부 (세속적 KPI)	하나님의 장부 (영적 KPI)
분기별 매출 극대화	직원의 영적/육적 회복
경쟁사 압도, 시장 독점	정직한 계약, 상생 네트워크
이윤의 축적과 확장	선한 영향력의 복제와 전파

내 믿음이 결재 서류와  
협상 테이블 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일터가 곧  
성전이 되는 순간

'더 큰 일'을 위한 도구와 마스터 방정식

시간관을 초월하는 현대의 확장 도구



비행기  
(공간 압축)

인터넷  
(실시간 연결)

AI  
(영향력 복제)

과거보다 더 넓고 깊은 사역이 가능

하나님 나라 플랫폼 공식

$$\left[ \begin{array}{c} \text{확장의 도구} \\ \text{(기술/자본)} \end{array} \right] \times \left[ \begin{array}{c} \text{선한 목적} \\ \text{(사람/신뢰)}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text{하나님 나라 플랫폼} \end{array} \right]$$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직원 한 명에게 진심 어린 말과  
따뜻한 악수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 NotebookLM

## 더 큰 일을 하리라 — 한진준 목사

눈에 보는 말씀 — 인포그래픽 시리즈

# 5월 23일 · 케노시스 — 비움, 그 거룩한 하강

빌립보서 2:5-11 · 서재찬 박사 (반석인더스트리즈 대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5)

2022년, 정상 고도를 순항하던 여행기가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조종석에 앉은 한 사람의 어두운 마음이 부른 참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의를 문습니다 — 만약 그 조종석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면? 내 인생과 사업의 조종석에는 누구의 마음이 앉아 있습니까?

## 1 자기 비움(케노시스)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신적 영광과 독립적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형태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사랑의 선택입니다.

## 2 죽기까지 복종

위대한 하강의 가장 낮고 거룩한 지점은 십자가였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던 죄의 담을 주님은 자기 육체로 무너뜨리셨습니다.

## 3 River인가 Rival인가

강을 함께 나누면 동역자가 되고 차지하려 다투면 경쟁자가 됩니다. 자기를 비우는 자만이 일터를 강처럼 흐르게 합니다. 마음의 블랙박스가 해독되는 날, 십자가는 그 모든 기록을 사하십니다.

### 나눔 질문

나의 사업 결정의 조종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번 주 내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 하나는 무엇입니까?

# 비움의 영성, 케노시스 (Kenosis: 자기 비움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비우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의 의지와 영광을 내려놓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케노시스(Kenosis)의 핵심 의미

**DEFINITION :**  
자기 비움(Self-Emptying)



자신의 신성한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건을 의미함.

**KEY\_FINDING :** 자발적 낮아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선택임.  
자신의 생각, 원함, 계획함, 계획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선택임.

**SUPPORTING\_FACT :** 화평의 근거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예수님처럼, 비움을 통해서만 진정한 공동체의 화합이 가능함.

## 케노시스적인 삶의 실천

**PROCESS\_STEP :**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DEFINITION :** 좁은 문과 작은 교회의 길



크고 화려한 길보다 주변의 압박과 제약을 감당해야 하는 '좁은 문'과 '희생'의 자리를 선택함.

**QUOTE :**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규모와 권력의 독경이 아닌,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짐.

연결

© NotebookLM

## 케노시스 — 자기 비움의 길 — 서재찬 박사

한눈에 보는 말씀 — 인포그래픽 시리즈

# 5월 30일 · CBMC의 현대적 적용 — Kingdom CEO OS

고린도전서 4:1-2 · 김기호 목사 (남포교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1-2)

경영자는 고독한 전장에서 있습니다. 모든 결정의 무게를 혼자 지는 CEO에게 이 강의는 새 운영체제(OS)를 제안합니다. "이 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 이 패러다임 전환에서 왕국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헬라어 세 단어가 그 3단계입니다.

## 1 휘페레테스 — 의지의 내려놓음

본래 '배 밑층에서 노 젓는 자'입니다. 항로는 선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정하시고, 나는 그분의 박자에 맞춰 노를 젓습니다.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 2 디아코노스 — 자원 흘려보내기

식탁 시중을 드는 청지기입니다. 맡겨진 이익과 자원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 3 피스토스 — 관계 자본의 축적

하나님·경영자·직원·고객 사이에 쌓이는 신뢰의 삼각형입니다. 충성스러운 한 번의 거래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관계 자본이 되고, 그것이 왕국 경영의 최종 결산입니다.

### 나눔 질문

내 회사라는 배의 키를 아직 내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휘페레테스로서 내려놓을 결정 하나, 디아코노스로서 흘려보낼 자원 하나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 크리스천 리더의 3가지 정체성

→ 세상 속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말은 자'

## 그리스도의 일꾼과 말은 자 (Identity)

**하레테스(Hyperetes):**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자신의 의사 없이  
오직 주권자인 예수님의  
복소리와 명령에만  
맞춰 노를 젓는 자

**디아코노스(Diakonos):** 이름 없이 섬기는 봉사자

자기를 드러내거나 주장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인의 뜻을 따르는 청지기

장기려 박사와  
마르다의 변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불평 없이 재능으로 섬겼던  
성경적 모델



## 관계와 삶으로 증명하는 충성 (Practice)

**피스토스(Pistos):** 성과보다 깊은 '관계'의 신실함



충성은 일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직한 관계를 맺는 신실함

시장 논리를 넘어선  
'일관성' 있는 삶

교회와 일터의 모습이 다른  
'바리새인과 해롯의 누룩'을 경계하고  
일관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과 성경이 되십시오"**

임술의 전도를 넘어, 당신의 인격과 흔적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입니다

## 크리스천 리더의 세 가지 정체 — 김기호 목사

한눈에 보는 말씀 — 인포그래픽 시리즈

## 5월의 길

경계하고 (풍요의 저주)

양보하고 (이삭의 우물)

믿고 (더 큰 일의 약속)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

말씀다 (충성된 청지기)

---

매주 토요일 오전 7:00 · 반석인더스트리즈(주)

경남 김해시 장유로 167-23

[cbmc-gimhae.netlify.app](https://cbmc-gimhae.netlify.app)

강의안 PDF · 강의 오디오 · 3개국어 글로벌 요약